

Vol. 134



HANSEN **한센**

모든이에게 사랑과 소망을

2026 1·2 월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Mapping a better future...
한국한센총연합회
THE KOREAN FEDERATION of
HANSEN ASSOCIATIONS

한국한센총연합회 소개

한국한센총연합회는

1969년 10월 13일 발족되어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수용을 촉구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핵심가치

- HARMONY** — 한센가족과 HARMONY 국민 모두의 소통을 통한 편견 해소
HOPE — 한센가족의 사회통합과 재활에 대한 소망 실현
HAPPINESS — 전 세계 한센가족의 인권과 복지 증진

비전

- 차별과 편견이 없는 행복사회 실현
- 한센사업의 역할 모델로 위상 제고
- 차별과 편견이 없는 행복사회 실현
- 한센사업의 역할 모델로 위상 제고

미션

- 한센인의 보건 복지 증진
- 한센인의 권익 보호 강화
- 한센인의 사회 통합 지원
- 한센인의 인권 신장 확대

사업목표

- 한센인 관련 법, 제도 등의 개정 및 제정
- 한센인의 보건복지 등 삶의 질 향상
- 한센 관련 단체와 연대 강화
- 한센인(병)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
- 한센인 권익 증진
- 한센인 사회 통합 지원
- 미래지향적인 한센정책 수립
- 국제 교류 협력 확대
- 한센인피해사건 기념관 건립
- 한센 관련 정책을 통한 주도적 위상 제고

사업소개



한센가족(hansen)을 상징하는 'h'로 한센가족과 국민 모두가 눈높이를 맞춰 소통으로 하나되고 대한민국 한센사업의 통합과 한센가족의 희망찬 미래와 행복 실현을 위한 열정을 형상화함

총연합회 공식 SNS채널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페이스북

CONTENTS

한센포커스

02 인사말

- 함께 걸어가는 삶의 지혜

04 스페셜 리포트

- 2026 시무식 및 신년하례예배

07 한센 리포트

- 대중매체 모니터링
- 2026 평생교육사업
- 2026 복지사업
- 2026 기획·홍보사업
- 정기감사
- 한눈에 보는 2026년 주요 사업
- 한센 가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한센탐방

34 지부는 지금

- 서울·중부지부

35 한국IDEA협회

한센공감

40 함께하는 한센

- 우리나라 좋은 나라_박우택
(서울·중부지부장)

42 소통하는 한센

- 김제 정착마을 축사 매입 예산 확보

한센이모저모

45 한센병 바로알기

- 2026 세계 한센병의 날
- 한센병, 궁금해요!
- 복지지원 한눈에 보기

56 정보알리미

- 봄 제철 음식 10

60 독자들의 공간

- 치매 예방 학습자료
- 한센 게시판
- 후원자가 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함께 걷어가는 삶의 지혜



사랑하는 한센 회원 여러분!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는 겨울의 끝자락에서 새해를 맞이하며, 회원 여러분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 마음을 담아 안부를 전합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작은 추위에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계절입니다. 부디 옷 따뜻이 챙겨 입으시고, 감기와 낙상에 특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연합회는 회원 여러분과 함께하며 많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의지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총연합회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한센 가족 모두가 보다 안정되고 존중받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한센인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을 강화합니다. 노년 생활플러스교육, 전동보장구 안전관리 교육, 치매예방교육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 유지와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문화복지사업, 한센인 합동결혼식, 우리마을 행복사진관, 독거 한센 어르신 돌봄 사업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돕고, 일상 속 행복을 체감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기획·홍보 사업 분야에서는 전국 한센인의 날 행사, 한센인 정착마을 실태조사, 대중매체 모니터링을 비롯해 한센지, 언론,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센병 사업의 성과를 알리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한센인 구술 기록화’ 사업을 통해 한센인의 삶과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이동이 불편한 고령 한센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한센병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며, 과거의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총연합회는 치료 중심에서 복지와 인권 중심으로의 변화에 발맞추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한센 가족 여러분,

인생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결국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배려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과 나눌 줄 아는 넉넉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며, 감사가 머무는 날들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히 지내십시오.

한국한센총연합회 회장 **이길용**



결속과 도약을 다짐한 2026년, 시무식 및 신년하례예배 통해 새 출발



1월 2일,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 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IDEA협회, 한국한성장로회가 공동주최한 ‘2026 시무식 및 신년하례예배’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새해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신앙 안에서 결속을 다지고, 지난 한 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1부 신년하례예배와 2부 시무식으로 나뉘어 엄숙하면서도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1부 예배는 참석자 전원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경건하게 시작됐다. 대표 기도를 맡은 방주교회 박정수 장로는 “지난 한 해 동안 한센인 공동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2026년 새해에는 모든 임직원과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총연합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했다. 이어 홍성수 장로가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다.



설교를 맡은 소록교회 윤성구 목사는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설교를 통해 새해를 살아갈 영적 에너지를 얻었으며,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를 함께 찬송하며 새해의 결단을 다졌다. 예배는 윤성구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되었다.

2부 시무식으로 이길용 총연합회장은 지난 2025년을 회고하며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회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센인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위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평가하며, “2026년은 그간 축적한 기반 위에서 더 큰 결실을 보아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대국민 인식 개선 사업을 강화하고, 고령화된 회원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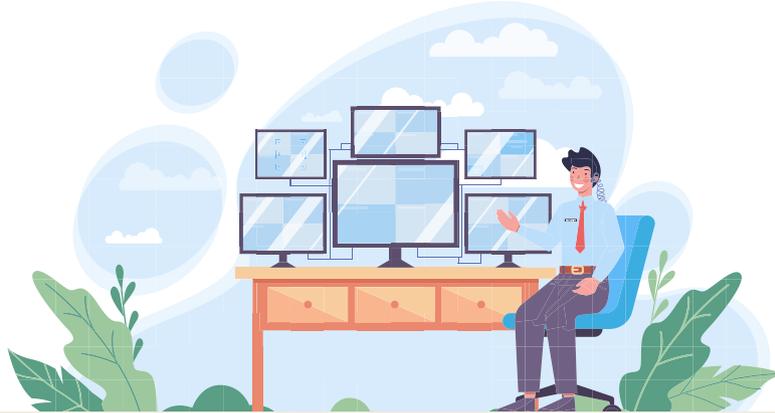
이어 한국IDEA협회 정상권 회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한센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관계자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라며 “2026년에도 총연합회와 긴밀히 협력해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후 주요 일정과 사업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 뒤, 주요 내빈들이 함께한 떡케이크 커팅식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총연합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힘찬 박수를 보냈다.

마지막으로 정성껏 준비된 오찬을 나누며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이번 시무식은 단순한 연례행사를 넘어, 2026년 한 해 총연합회가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고 구성원 간의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2026년 대중매체 모니터링을 통한 한센병 차별 용어 사용 완화와 인식 개선



-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으로 언론 매체 내 부적절한 표현 감소 유도
- 한센인 권익 보호 위한 사회적 인권 감수성 제고 집중

2025년 한 해 동안 117건의 차별 용어를 적발하여 100% 수정을 이끌어냈던 총연합회는 2026년 새해에도 대중매체 모니터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 한 해가 차별 용어의 사후 시정에 집중하며 언론사의 협력을 확인한 시기였다면, 2026년은 이를 바탕으로 차별 표현의 발생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올바른 용어 정착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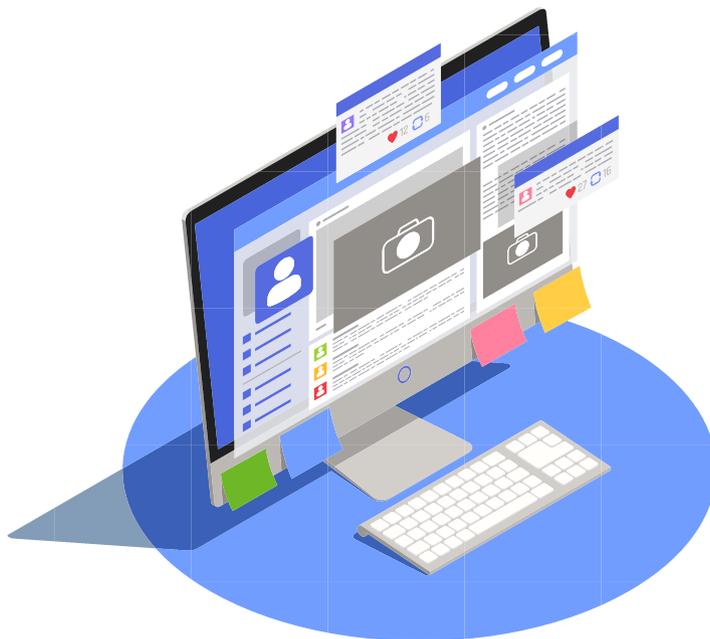
올해 1월 진행된 모니터링 결과,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차별적 용어들이 총 17건 발견되었다. ‘나병’이나 ‘문○이’와 같은 표현들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사례가 이어졌으며, 특히 성경 구절을 인용하거나 과거의 기록을 다루는 종교 매체 및 일반 세속 매체 등에서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었다.

총연합회는 적발된 11건의 사례 모두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요청을 보냈으며, 2025년의 성과를 이어받아 1월 중 발견된 전체에 대해 수정 완료 또는 주석 병기 등의 조치를 100% 이끌어냈다. 이는 단순한 단어의 수정을 넘어,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박힌 편견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한센병은 의학적으로 완치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매체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단어 한 마디가 한센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다. 이길용 회장은 “언론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차별적 용어는 한센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사회적 낙인을 남기는 일”이라며 “단순히 단어를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총연합회는 모니터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정교한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게시물까지 감시망을 넓히고 있으며, 언론사들이 보도 가이드라인에 한센병 표준 용어를 명시하여 스스로 차별 용어를 걸러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월, 단 5건의 적발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확인했던 변화의 가능성을 2026년에도 이어가기 위해 총연합회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대중매체에서 차별 용어가 완전히 사라지고, 언론의 펜 끝이 한센인들에게 상처가 아닌 공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날까지 모니터링과 인식 개선 사업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1월 대중매체 모니터링 현황: 17건

언론사명	기사 발행일	기사 제목	수정 전 단어	수정 후 단어
한겨레	2025. 11. 26.	“전쟁과 재난 속 그들과 얼마간 함께 있었다는 것” [이광이 잡념잡상]	나병	한센병
데일리굿뉴스	2025. 12. 12.	11일, 2회 두비포 난민기구 감사 및 후원의 밤	나병	한센병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25. 12. 18.	여성 종교인들, 인공지능 시대 ‘마음’을 일깨우다	나병	한센병
비즈니스포스트	2025. 12. 24.	[Who Is?] 남기연 큐리언트 대표이사	나병	한센병
아시아엔	2025. 12. 27.	[엄상의 칼럼] 조진웅의 은퇴, 판단은 누구의 몫인가	문○이	한센인
크리스천투데이	2025. 12. 29.	파키스탄, 이례적으로 국가 차원서 성탄절 기념하며 연대 강조	나병	한센병
국민일보	2025. 12. 30.	[강영안 교수의 질문하는 삶]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나병	한센병
파이낸셜 리뷰	2025. 12. 30.	여행형 역사서 ‘당일치기 조선여행: 전국 편’ 출간	나병환자	한센인
대구신문	2025. 12. 30.	대구의 뿌리를 찾아서-달성군 (7)논공(論工)은 6세기 최첨단 철제방산단지, 신라의 호국 전초기지... 황도 경주에 물산공급 젖줄	문○이	문장 삭제
오마이뉴스	2025. 12. 31.	20대같은 76세 할머니? 카메라에 담긴 늙지 않는 ‘영생인’의 비밀	문○이	한센인
부산일보	2026. 1. 1.	[2026 신춘문예-단편소설] 여기서 누군가 / 윤현준	나병	나병(한센병) ※주석 추가
베이비타임즈	2026. 1. 5.	[변요한목사 시론] 받은 은혜와 감사 훈련	나병	나병(한센병) ※주석 추가
서울신문	2026. 1. 6.	[김동률의 정원일기] 그 겨울의 시	문○이	문○이는 ‘한센인’의 이전 명칭 ※주석 추가
충청뉴스	2026. 1. 8.	[이준우 칼럼] 삼재는 운명학적 근거 없는 속설!	문○이병	한센병
충북일보	2026. 1. 13.	겨울을 사랑하다	문○이	문○이 : 현재는 한센인으로 불림 ※주석 추가
표표사 PPSS	2026.. 1. 14.	[박황우 칼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병	한센병
일요신문	2026. 1. 16.	[일요칼럼] 17세의 무게	문○이	단어 삭제

한센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평생교육 사업

총연합회는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추어 고령의 한센인이 더 안전하고 존엄한 노년을 누릴 수 있도록 2026년에도 ‘한센인 평생교육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평생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사회적 기반으로, 신체적·사회적 특수성을 지닌 한센인 어르신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지원이다.

한센인 평생교육 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매예방교육 ▲노년 생활플러스교육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 등 세 가지 교육으로 구성된다. 총연합회는 각 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도 한센인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주체적인 삶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돕고,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치매예방교육 : 뇌 건강을 지키는 배움, 활기찬 일상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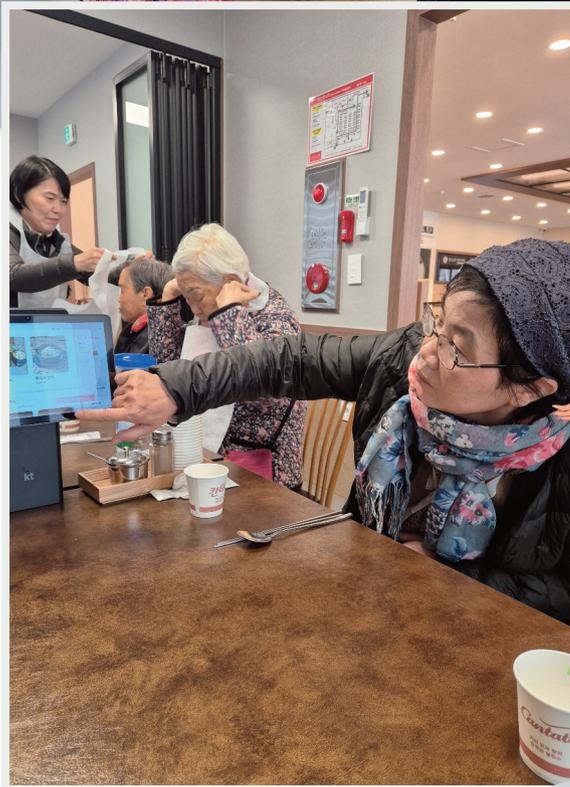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5년 기준 1,051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와 함께 치매 유병률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평균 연령이 82세에 이르는 한센인 어르신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체계적인 치매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총연합회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한센인 어르신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장애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매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인지 기능을 자극하는 활동과 더불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치매 예방 습관 형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어르신들이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덜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억을 지키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건강한 노후를 만든다는 메시지와 함께, 한센인 맞춤형 치매예방교육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일상을 응원하며 2026년에도 꾸준히 이어질 예정이다.

▣ 노년 생활플러스교육 : 일상에 힘을 더하는 배움, 사회와의 연결





편견과 신체적 장애 속에서도 묵묵히 삶을 이어오신 한센인 어르신들에게 노년기는 또 다른 적응의 시간이다.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삶의 주체로 당당히 서기 위해서는 일상생활과 사회 적응을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총연합회는 한센인 어르신들의 자존감 향상과 생활 적응력 강화를 목표로 ‘노년 생활플러스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 교육에는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신체 기능 유지를 돕는 ▲건강 교육,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는 ▲IT 교육, 그리고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행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행복 교육이 포함된다.

노년 생활플러스교육은 어르신들의 일상에 편리함과 자신감을 더하며, 고령의 한센인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노년을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있다.

▣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 : 나와 이웃을 지키는 이동의 약속



전동보장구는 신체적 불편함을 겪는 한센인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사회와 세상을 이어주는 소중한 발이다. 그러나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어르신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총연합회는 이러한 필요에 따라 2024년부터 전동보장구 전문가와 협력해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나와 이웃을 지키는 안전운전’을 핵심 가치로 삼아, 교통사고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다. 운행 중 전도나 추돌과 같은 운전자 사고 예방, 안전거리 확보와 올바른 전·후방 주시를 통한 대인 사고 감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총연합회는 전동보장구 안전운전 문화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궁극적으로 ‘전동보장구 사고 제로(Zero)’가 실현될 수 있도록 2026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삶의 곁으로 다가가는 한센인 복지사업

총연합회는 제도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한센인 어르신들의 일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센인 복지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존중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연결을 만들어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

2026년에도 총연합회는 한센인의 삶에 위로와 활력을 더하는 ▲한센인 독거노인 돌봄 ▲찾아가는 문화복지 ▲한센인 합동결혼식 ▲우리마을 행복사진관 사업을 통해, 삶의 순간순간에 필요한 복지를 세심하게 이어갈 예정이다.

▣ 한센인 독거노인 돌봄 : 혼자가 아닌 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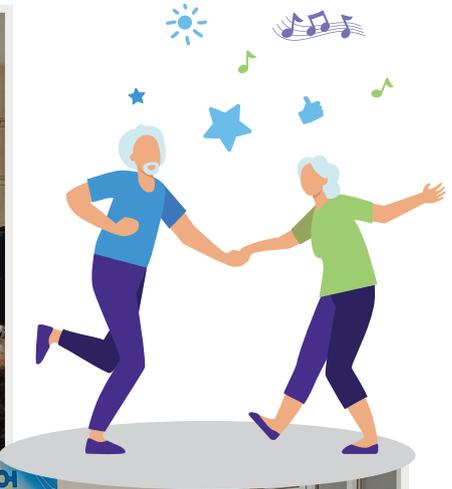
고령의 한센인 중에는 가족과의 교류가 적거나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이 적지 않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창한 지원보다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안심과 지속적인 관심이다.

총연합회는 한센인 독거노인 돌봄 사업을 통해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생활 지원을 이어가며,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도움을 연계하고 있다. 작은 관심과 꾸준한 돌봄은 어르신들의 일상에 안정감을 더하고, 고립감을 완화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

한센인 복지사업은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사람의 삶을 중심에 두고, 관계와 존엄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총연합회는 2026년에도 한센인 어르신들의 삶의 현장에 귀 기울이며, 복지가 일회성 지원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동행’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걸어갈 것이다.

▣ 찾아가는 문화복지 : 일상에 스며드는 문화의 힘





문화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그러나 이동의 제약과 환경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한센인 어르신들에게 문화는 늘 멀게 느껴져 왔다. 이에 총연합회는 어르신들이 계신 삶의 공간으로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문화복지 사업’을 통해 문화 향유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공연, 체험, 참여형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문화복지는 어르신들의 일상에 즐거운 변화를 선물하고, 웃음과 대화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 문화 활동을 매개로 한 소통은 어르신들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공동체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다.

▣ 한센인 합동결혼식 : 존엄한 삶을 축복하는 자리



한센인 합동결혼식은 여러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거나, 조출한 예식조차 어려웠던 부부에게 늦었지만, 진심 어린 축복을 전하는 자리이다. 이 행사는 단순한 의례를 넘어, 오랜 시간 함께 견뎌온 삶을 사회가 함께 축하하고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총연합회는 합동결혼식을 통해 부부의 소중한 인연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가족과 이웃, 공동체가 함께 축복하는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간다. 예식의 순간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전하며, 한센인 삶의 존엄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 우리마을 행복사진관 : 삶의 얼굴을 기록하다



‘우리마을 행복사진관’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그 시간을 기억으로 남기는 복지사업이다. 평생을 묵묵히 살아오신 한센인 어르신들에게 단정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서는 경험은 자신을 돌아보고 존중받는 존재임을 느끼게 하는 특별한 순간이다.

메이크업과 헤어, 의상 준비부터 촬영과 액자 제작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은 단순한 사진 촬영을 넘어,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이어진다. 완성된 사진 속에는 각자의 삶이 담기고, 그 사진은 가족과 이웃에게 전해지는 소중한 선물이 된다.

기록하고 알리며, 사회와 연결하는 기획·홍보사업

총연합회의 기획·홍보사업은 한센인의 삶과 역사를 사회와 연결하는 가교 구실을 한다. 눈에 보이는 지원을 넘어, 한센인의 존재와 목소리가 사회 속에서 올바르게 이해되고 기억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2026년 총연합회는 기획과 홍보를 통해 한센인의 권익을 알리고, 정확한 정보 전달과 기록을 기반으로 한 인식 개선에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기획·홍보사업은 ▲전국 한센인의 날 ▲정착마을 실태조사 ▲대중매체 모니터링 ▲홍보매체 운영 ▲한센인 구술 기록화 사업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사업은 ‘기억-기록-확산’이라는 흐름 속에서 유기적으로 추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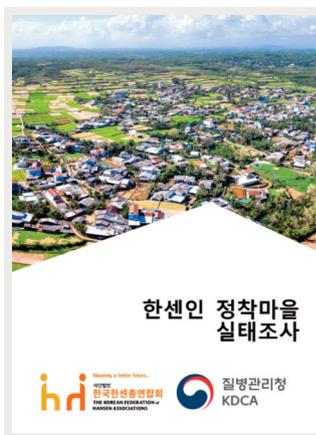
▣ 전국 한센인의 날 : 삶과 역사를 함께 기억하는 국가적 기념의 장



‘전국 한센인의 날’은 한센인의 삶과 역사를 사회적으로 재조명하고, 한센인 상호 간의 연대와 화합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 이 행사는 한센인과 가족, 정부 및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한센인 인권과 복지 증진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적 차원의 기념행사로 자리매김해 왔다.

기념식과 축하 행사, 유공자 포상, 문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는 전국 한센인의 날은 오랜 시간 차별과 편견 속에서도 삶을 이어온 한센인의 존엄을 사회가 함께 기리고 응원하는 장이다. 총연합회는 2026년에도 이 뜻깊은 행사를 통해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지속적인 연대와 지지를 끌어낼 계획이다.

▣ 정착마을 실태조사 : 데이터로 준비하는 한센인 복지의 미래



정착마을 실태조사는 초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한센인 사회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향후 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평균 연령 상승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주거 환경의 노후화, 의료·요양 욕구의 다양화 등 복합적인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이 조사의 핵심 목적이다.

총연합회는 전국 정착마을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복지 욕구, 이동 및 의료 서비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신뢰도 높은 기초자료를 구축한다. 축적된 데이터는 주거 환경 개선과 복지 예산 확보, 정책 제안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며, 한센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기반이 된다.

▣ 대중매체 모니터링 : 왜곡 없는 정보, 편견 없는 사회를 위해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는 사회 인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매체와 종교 단체 등에서 한센병에 대한 부정확한 표현과 왜곡된 정보가 사용되고 있어, 지속적인 점검과 대응이 요구된다.

총연합회는 연중 대중매체 모니터링을 해 잘못된 정보를 확인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요청함으로써 한센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 전반에 남아 있는 편견을 줄이고, 한센인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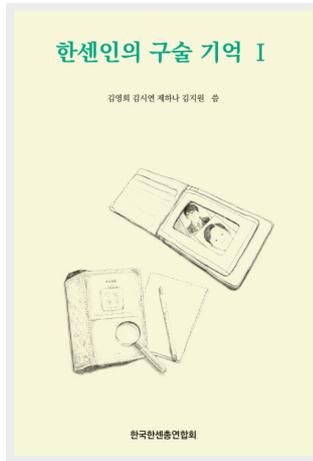
▣ 홍보매체 운영 : 소식과 기록을 잇는 통합 소통 창구



총연합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한센인과 사회를 연결하고 있다. 소식지 「한센」, 언론보도, 홈페이지와 SNS 등은 총연합회의 주요 사업과 성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한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창구다.

홍보매체 운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한센인의 삶과 역사를 기록하고 공감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통합적 홍보 전략을 통해 총연합회는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일반 국민과 후원자, 자원봉사자의 참여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어내고 있다.

▣ 한센인 구술 기록화 : 사라지지 않도록 남기는 삶의 목소리



한센인 구술 기록화 사업은 한센인의 생애와 경험을 직접적인 목소리로 기록해 다음 세대에 전하는 작업이다. 한센인의 수가 점차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이 사업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역사적 책임을 담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총연합회는 구술 기록화를 통해 한센인의 애환과 삶의 지혜, 시대의 흔적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공감과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자 한다. 이는 과거의 차별을 넘어, 한센인의 삶이 우리 사회의 역사로 온전히 자리 잡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총연합회의 기획·홍보사업은 한센인의 삶을 기록하고, 그 의미를 사회에 알리며,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2026년에도 총연합회는 기획과 홍보를 통해 한센인과 사회가 더 깊이 이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정기감사 실시, 투명한 운영 기반 재확인

지난 2월 11일, 총연합회 사무실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감사가 실시되었다. 이번 감사는 최종현 감사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총연합회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업무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정기감사는 사전에 제출된 자료 검토와 함께 현장 질의응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무·회계·사업 분야 등 총연합회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세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특히 예산 집행의 적정성,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 준수 여부, 내부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확인이 이뤄졌다.

감사 결과, 총연합회는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주요 사업과 행정 업무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의견과 조언이 함께 제시되었다.

총연합회는 이번 정기감사를 통해 조직 운영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더 체계적이고 신뢰받는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총연합회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센인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눈에 보는 2026년 한국한센총연합회 주요 사업

우리 총연합회는 한센인의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지원하고, 교육·복지·기획·홍보 사업을 통해 인식 개선과 기록을 이어가며 한센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한다.



한센인 평생교육사업

치매예방교육



뇌 건강과 신체 건강을 연계하여 생활 속 치매 예방 습관을 형성,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교육

사업시기	2026년 3월~11월
대상	교육을 희망하는 정착마을 4개소
내용	오감을 활용한 통합적인 치매예방교육

노년 생활플러스교육



다양한 배움을 통해 노년의 사회 적응력과 자존감 향상,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교육

사업시기	2026년 3월~11월
대상	교육을 희망하는 정착마을 2개소
내용	건강증진과 낙상예방,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활용, 행복 관련 교육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이동을 위한 전동보장구 안전 교육, 전동보장구 점검 및 수리 추진

사업시기	2026년 4월, 6월, 9월, 10월
대상	교육을 희망하는 정착마을 4개소
내용	전동보장구 안전 교육, 점검 및 수리

보건요원교육



정착마을 한센인의 건강 관리를 돕는 보건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비대면 교육 추진)

사업시기	2026년 상반기 예정
대상	정착마을 보건요원
내용	응급 조치, 노인 건강 관리 관련 교육

축산경영교육



축산경영인을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축산업 경영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제공(비대면 교육 추진)

사업시기	2026년 하반기 예정
대상	정착마을 축산경영인
내용	정부의 축산업 정책, 양돈·양계 분야 전

한센인 복지 사업

찾아가는 문화복지



문화적 소외감을 느끼는 한센인 정착마을을 직접 찾아가 문화복지 활동을 제공하여, 활기찬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시기	2026년 4월
대상	정착마을(1개 마을 및 2개 마을 이상 연합 가능)
내용	찾아가는 문화공연 프로그램(마술, 품바, 태권도 공연 등)

한센인 합동결혼식



공식적인 결혼식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 및 가족간 유대강화 등으로 한센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회 제공

사업시기	2026년 10월
대상	한센인 중 결혼희망자(4쌍)
내용	합동결혼식(예복, 헤어 및 메이크업), 실·내외 웨딩촬영, 호텔 1박 등

우리마을 행복사진관



건강과 장수 기원의 의미를 담아 장수 촬영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와 삶의 질 향상 지원

사업시기	2026년 4월~5월
대상	정착마을 거주자(재가 한센인 포함) 중 65세 이상 한센인 및 배우자
내용	메이크업 및 헤어드라이, 의상 제공, 사진 촬영, 액자 제작 등

독거노인 돌봄사업



한센인의 숨겨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여 위기 극복, 소외와 고립 문제 해결을 통해 정서적 만족감 향상을 위한 사업

사업시기	2026년 4월~11월
대 상	65세 이상 한센인 중 독신가구 60명
내 용	건강 상태 및 생활 환경 개선 사항 확인, 개인의 생활사와 건강 변동사항 기록

▣ 기획·홍보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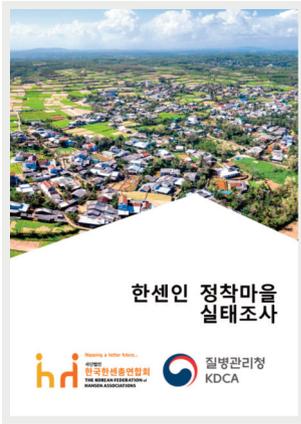
전국 한센인의 날



한센인 간 친목 교류 및 화합의 장을 제공하고, 한센인 인권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자에게 감사와 격려를 통한 지속적인 관심 유도과 한센인(병)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사업시기	2026년 5월
대 상	전국 한센인 및 가족, 정부 및 관계기관 등
내 용	기념식, 정부포상, 한센사랑 축제 한마당(웃놀이, 노래자랑 등), 추억만들기 등

한센인 정착마을 실태조사



한센인 생활환경 실태 및 복지 욕구 조사를 통해 향후 사업 방향성 설정 및 필요 법안 제안 등을 위한 통계 자료 활용

사업시기	2026년 5월~11월
대 상	80개 정착마을
내 용	일반 현황, 생활환경 현황, 복지 욕구 현황 등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수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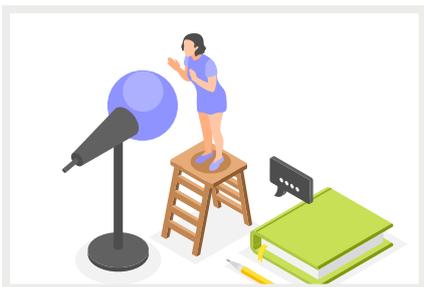
대중매체 모니터링



한센인(병)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편견 해소를 통한 인식 개선 기회 제공

사업시기	연중 실시
대 상	대중매체(TV방송, 라디오, 신문 등), 국가포털, 종교 단체 등
내 용	모니터링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 정확한 정보로 수정

한센인 구술 기록화



한센인의 생애사 구술을 기록하여 책으로 출간, 편견 해소, 역사 자료로 보존 및 활용

사업시기	2026년 3월~11월
대 상	생애사 구술 희망 한센인
내 용	한센인의 생애사 구술 기록화, 책 제작

홍보매체운영



오프라인 매체(한센지, 언론보도 등) 및 온라인 매체(홈페이지, SNS 등)를 통한 친근한 이미지 제고와 한센인(병)에 대한 정보제공, 이용자 참여 및 자원 연계를 증진하기 위한 소통 창구의 구축

사업시기	연중 실시
대 상	한센인, 관계기관, 정부기관, 일반국민,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내 용	총연합회의 소식과 공지 사항 전달 및 한센 사업 및 성과 소개, 한센인(병)에 대한 정보제공, 한센 관련 내용의 역사적 자료 보존, 한센인들의 문학 작품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

한센 가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안내

1 일본 한센 가족들에 대한 보상 판결

- 일본 정부는 과거 일제강점기하 소록도에 강제격리·노동을 당한 한센피해자들에게 일본 한센 보상법을 제정하여 보상을 실시한 바 있음
- 이후 한센인 가족들이 일본 구마모토 지방법원에 제기한 보상청구소송 또한 2019. 6. 28. 승소 판결하였고, 이에 일본 정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 취지에 따라 2019. 11. 15. 한센병원환자가족보상법을 제정하여 한센인 가족들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있음
- 격리 정책으로 인한 한센 가족 피해를 인정하고 사죄·반성을 표하면서, 한센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그 명예 회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한센가족보상법 제정

2 보상 청구의 내용

- 보상금은 친자, 배우자 180만엔, 형제자매 130만엔 등
- 청구시한은 2029. 11. 21.까지(한시법)

3 보상 대상

- 가족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이하 청구자)는 일제강점기하(1945. 8. 15.)에 한센병이 발병된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이하 원환자)의 가족
- 대상자는 1945. 8. 15.이전 출생자로서 생존하고, 한센병 발병여부 불문(한센인, 비한센인 여부 불문)
- 대상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혼인일이 1945. 8. 15. 이전이어야 하며, 사실혼 배우자도 가능
- 원환자는 1945. 8. 15.이전 발병자로서 소록도 입소 및 사망 여부 불문
- 원환자가 일본으로부터 소록도 보상을 받은 경우도 가능(대상자가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

4 청구시 필요 서류(예시)

- ① 원환자 일제하 한센병 발병사실 증명서류
 - 한센등록(관리)카드, 한센사업기록표, 나병력자 관리카드, 소록도 입소 증명서, 교적부, 세례명부, 소록도 보상결정문 등
- ② 대상자가 원환자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 일제 또는 해방후 구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③ 대상자가 1945. 8. 15. 이전 출생자로 생존한 사실
 - 주민등록 초본
- ④ 대상자 은행계좌 사본
- ⑤ 기타 입증서류

5 안내 및 문의

- 현재 한국 변호사들은 ‘한센가족보상청구변호단’을 구성(단장 조영선 변호사)하여 일본 변호단과 업무협의를 추진하였음
- 2026. 1. 31. 기준 158명(1차 62명, 2차 63명, 3차 14명, 4차 1명, 5차 3명, 6차 5명, 7차 10명)의 서류를 일본에 송부하였고, 131명이 보상 결정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보상 심의 중임
- 한센인 가족 피해보상은 한센인과 그 가족들이 당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보상임
- 청구인이 고령자이므로 신속하게 서류 준비 필요(청구인은 일본 정부에 서류를 접수하는 날 기준으로 생존해야 함)

문의사항 한국한센총연합회

전화 1566-2339 / 팩스 : 1566-2032

서울·중부지부 청원마을, 코주부씨앤에프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실천

서울·중부지부(지부장 박우택) 산하 청원마을(대표 장경선)은 (주)코주부씨앤에프(대표 김정일)의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마을 주민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주)코주부씨앤에프는 청원마을에 거주하는 한센인, 한센인 미망인, 한센인 2세를 포함한 모든 주민 세대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자회사 제품인 어묵을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이는 청원마을 주민들의 식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고령의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마을 특성상, 간편하면서도 영양을 보완할 수 있는 식품 지원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나눔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이고 꾸준한 실천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코주부씨앤에프는 그동안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왔으며,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나눔 철학은 청원마을과의 인연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주민들의 일상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청원마을 관계자는 “매달 빠짐없이 전달되는 후원 물품은 단순한 식품 지원을 넘어, 주민들이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든든한 위로가 되고 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울·중부지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한센인과 그 가족들이 더 안정적이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필리핀 워크숍 개최 및 생필품 전달



▲ 한국IDEA협회와 IDEA 필리핀 워크숍 기념촬영

한국IDEA협회(회장 정상권)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필리핀 세부를 방문해, 만다웨시(시장 조비토 오와노, Jovito Ouano) 지역의 한센인과 극빈층을 위한 생필품 지원 행사와 함께 에버슬리 차일즈 요양병원(Eversley Childs Sanitarium and General Hospital) 인근 한센마을 주민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인권회복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28일에는 만다웨시 텡부 초등학교(Tingub Elementary School)에서 생필품 전달 감사 예배가 진행되었으며, 한센인과 극빈층 주민, 시청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오와노 시장은 “세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시 차원에서 세세하게 돌보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인사했다.



▲ 필품 전달 감사예배(사진 좌측부터 김은경 운영위원, 박봉수 부회장, 안영철 공동회장, 조비토 오와노 만다웨시장, 정상권 대표회장, 양내권 목사)

이튿날에는 에버슬리 차일즈 요양병원 외래진료센터 2층 세미나홀에서 「경제발전을 통한 인권회복 및 사회참여 증진에 관한 워크숍」이 열렸다. 병원 관계자와 지역 한센인, 가족들이 함께 참석했으며, 특히 자녀들은 장학금 지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협회와 함께 방문한 참석자들은 한국IDEA협회의 해외 선교사업 참여 경험과 인권회복 및 사회참여 지원 활동, 개인의 경제자립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의미 있는 교류의 시간을 이어갔다.



▲ IDEA필리핀 임원들과 장학생들

정상권 회장은 “우리 세대는 차별과 편견 속에서 경제자립을 이루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장학금과 점심 지원이라는 기회를 받고 있다.”라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며, 이 기회를 통해 각자의 꿈과 목표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상권 회장을 비롯해 평남노회장 양내권 목사, 공동회장 안영철 장로, 부회장 박봉수 장로, 운영위원 김은경 집사, 정영란 사무국장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한국 IDEA협회와 암사제일교회, 한울가족공방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네팔 칼와리 교회 지붕 보수공사 지원



▲ 네팔 칼와리 교회 전경

한국IDEA협회(회장 정상권)는 지난해 12월, IDEA 네팔 아마르 티말시나 회장을 통해 네팔 룸비니주 바르디아 지구에 위치한 칼와리 교회(Calvary Church)의 지붕 내부 보수공사를 지원했다.

칼와리 교회는 현재 약 60여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교회 지붕이 주석으로 되어 있어 여름철에는 내부 온도가 크게 상승해 정상적인 예배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교회 측은 한국IDEA협회에 지붕 내부 보수공사를 요청해왔다.





칼와리 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는 바스카르 아디카리(Bhaskar Adhikari) 목사는 부모가 한센인이었던 가정환경 속에서 본인과 가족 모두가 차별과 편견을 겪으며 매우 어려운 성장 과정을 거쳤다. 그럼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노력해, 1993년 바르디아 지역 최초의 교회를 설립했으며, 현재는 IDEA 네팔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며 한센인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중천장 설치와 단열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바스카르 목사는 “성도들이 연중 내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린다.”라며 “특히 노약자와 건강이 취약한 성도들에게 큰 격려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박우택(서울·중부지부장)

몇 년 전, 나는 지인들과 동유럽 여행을 떠났다. 인천공항을 이륙해 12시간 가까이 비행한 끝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다. 힘겨운 여정이었다.

버스로 이동해 체코 프라하 관광을 마치고 국경을 넘어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향하던 중, 갑작스러운 복통이 심해져 부다페스트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대기자가 많아 장시간 기다리다 결국 실신했고, 그제야 급히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검진 결과 담낭염이 심해 염증 수치가 높으니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다. 수술 준비가 진행되는 듯했지만, 시설이 열악해 믿음이 가지 않았다. 응급처치를 받은 뒤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회복되는 느낌이 들었다.

‘죽더라도 우리나라에 가서 죽겠다’는 결심으로 수술을 거부하고 퇴원하겠다고 하니, 병원 측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을 요구했고, 서명 후 아침에 퇴원 준비를 할 수 있었다.

문제는 돈이었다. 가진 돈이 넉넉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을 눈치챈 직원이 다가와 설명해주었다. 우리나라와 헝가리가 의료협력 협정을 맺고 있어 국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고마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외상으로 진료를 받고 퇴원한 뒤 일행들과 합류했다. 일행들에게 누가 될까 사력을 다해 남은 일정을 아내의 도움으로 소화했다. 아내의 애간장이 다 녹았을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한없이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이다. 부부라는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살아가며 더욱 뼈저리게 느꼈다.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 탑승하려 했으나, 사무장은 중환자는 탑승이 불가하다며 “No”라고 했다. 순간 만감이 교차했다.

‘이 비행기를 못 타면 나는 끝이다.’

절박한 심정에 눈앞이 캄캄했다. 자신 있다고 허세를 부리며 간절히 사정했다. 하늘도 감동했는지 결국 탑승이 허락되었다. 빠른 걸음으로 지정 좌석에 앉아, 이륙 전까지 견재한 모습을 보이려 안간힘을 다했다.

다행히 한 자리를 배려받아 이륙 후에는 아내 무릎에 기대 누운 채 긴 시간을 견뎌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숨 막히는 순간이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앰블런스가 대기하고 있었고 가까운 인천 병원이 아닌 대전 을지대병원으로 갈 것을 요청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가족과 자식들 걱정이 앞섰다.

을지대병원에 도착하자 신속히 응급실로 향해 검진을 받았다. 그런데 담낭염이 아니라 맹장염이 터진 것이었다. 어이없는 현실 앞에서도 감사했지만, 장이 많이 상해 당장 수술은 못하고 3개월 정도 치료 후 수술할 수 있다고 했다.

염증 치료와 복부 농 제거 처치를 받고 수액을 맞으며 안정을 취했다. 그제야 ‘이젠 살았구나’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죽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자랑스럽고 기쁘고 감사했다. 해외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되는 것 같다.

약 5개월 후 헝가리 병원에서 청구서가 국제우편으로 와서 고마운 마음에 즉시 송금해 주었다.

우리에게 절실한 의료와 노인복지는 세계적 수준인 것을 또 한 번 느꼈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우연히 거저 된 것이 아님을 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들,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의 희생, 파병 장병들의 헌신,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공로를 기억하며 깊이 감사드린다.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는 똑바로, 잘 살아야 한다.

김제 정착마을 축사 매입 예산 확보, 한센인 권익 증진과 상생의 길 열어야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정착마을 일대

총연합회는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정착마을의 잔여 축사 매입을 위한 국비 85억 원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깊은 관심을 표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수십 년간 어려움을 겪어온 한센인 정착마을의 생활환경 개선이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 구간에는 용지면의 대표적인 한센인 정착마을인 신암마을(대표 안중호), 신흥마을(대표 김금화), 비룡마을(대표 김만기)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 하나씩 현실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김제시 환경과에서 지난 12월 1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제시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340억 원(국비329억 원, 도비 30.6억 원, 시비 51억 원)의 사업비로 신암·신흥·비룡마을을 포함한 용지면에 있는 축사 27개소를 매입하고 철거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과 인근 혁신도시의 악취 해소라는 정책적 목표 아래 추진되고 있다. 총연합회는 이러한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이 사업의 중심에는 ‘한센인들의 삶과 역사’가 함께 자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제 용지면 정착마을은 단순한 축사 밀집 지역이 아니라, 1960년대 정부의 정착 정책에 따라 사회적 편견과 제약 속에서도 한센인들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스스로 일궈온 삶의 터전이다.

당시 한센인들은 제한된 사회 환경 속에서 축산업을 주요 생계 수단으로 삼아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이 지역은 환경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이는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 당시 제도적 여건과 지원의 한계 속에서 형성된 구조적인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축사 매입 사업은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오랜 시간 묵묵히 삶을 이어온 한센인들의 노고와 삶의 역사를 함께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김제시는 지난 2022년부터 축사 매입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상승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애초 계획한 물량의 절반 수준만 매입을 완료한 바 있다. 이번에 확보된 85억 원의 국비는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어, 한센인과 지역 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총연합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함께 고려되기를 기대한다.

첫째, 한센인들의 생활 안정을 충분히 반영한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수십 년간 이어온 생계 터전을 정리하는 과정은 단순한 자산 이전을 넘어 삶의 방식이 변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특히 고령의 거주민들이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과 배려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둘째, 정착마을의 고령화 현실을 반영한 복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용지 정착마을 거주자의 다수는 8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일상생활과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축사 철거 이후의 부지 활용 과정에서 의료 지원과 돌봄 서비스 등 실질적인 복지 인프라가 함께 검토되어, 어르신들이 지역 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총연합회는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김제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축사 매입 예산 확보가 새만금 유역의 수질 개선과 지역 환경 개선을 넘어, 용지면 한센인들의 오랜 삶의 무게를 함께 덜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26년 1월 25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한센병의 날'

자료제공: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매년 1월 마지막 주 일요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한센병의 날(World Leprosy Day)'이다. 이 날은 프랑스의 인도주의자 라울홀레로(Raoul Follereau, 1903~1977)가 아프리카 여행 중 한센병 환자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1954년 1월 31일(일) 프랑스 의회에서 결의 선포를 시작으로 올해 제73회를 맞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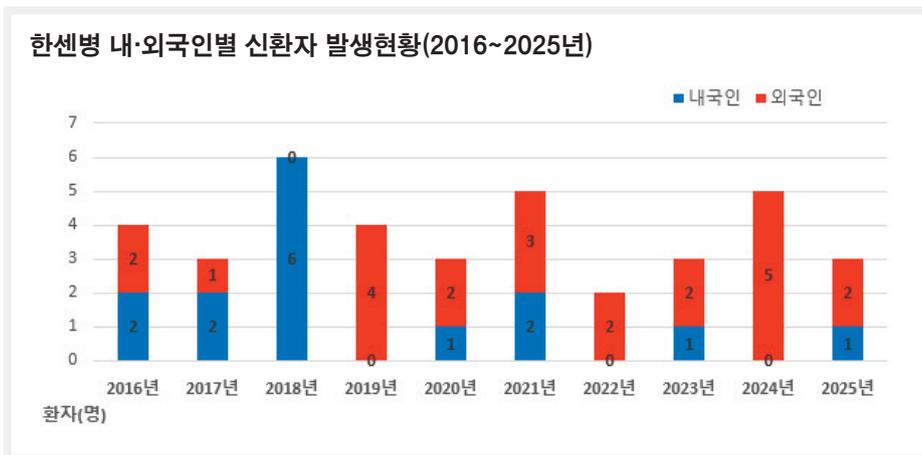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월 25일(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한센병의 날'을 맞아, 국내·외 한센병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국내 한센병 퇴치 수준 유지를 위한 예방정책과 환자관리 분야의 정부 노력과 성과를 발표했다.

한센병은 나균에 의한 감염병으로 리팜피신 1회 복용으로 99.9% 전염성이 소실되어 감염의 위험성이 없고, 다중약물치료요법(답손, 리팜피신, 클로파지만)으로 완치 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는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낙인·차별을 해소하고, 예방 및 완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세계 한센병의 날'을 지정하였고, 당일 세계 각국에서는 한센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캠페인, 행사, 회의, 기부 활동 등으로 기념일 의미를 알리고 있다.

■ 국내 한센병 발생 현황: 10년간 한 자릿수로 안정적 관리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한센병 신환자는 매년 10명 이내로 발생하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국내 한센병 신환자는 내국인 1명, 외국인 2명 등 총 3명으로 2024년 5명에 비해 감소했다. 특히 2025년 내국인 신환자의 경우 해외 장기 체류 이력이 확인되어, 국내에서 지속적인 감염 확산이 아닌 해외 유입에 따른 발생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국내 한센병 관리체계가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지만, 한센병이 완전히 종식된 질환이 아님을 동시에 시사한다.

■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지속되는 한센병

전 세계 한센병 신환자는 2024년 기준 172,717명으로, 전년도 대비 5.5% 감소했으나,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한센병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전체 신환자의 약 72%가 집중되어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한센병 다발성 국가 23개국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국제적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한센병이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닌 국제 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보건 과제를 보여준다.

■ 한센병 치료 이후에도 이어지는 삶을 위한 지원

현재 국내 한센병 사업대상자는 2025년 기준 6,777명으로 대부분이 고령의 한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균 연령은 약 80세로, 치료는 종료되었지만 재활·돌봄·생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많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한센병 치료약품 무상 지원은 물론, 이동·외래·입원 진료 지원, 재활 수술 및 보장구 제작, 생활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한센총연합회는 정부 정책과 현장을 잇는 가교로서, 한센인의 삶 전반을 살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총연합회는 전국 회원과 정착마을, 시설 및 재가 한센인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교육·문화·권익 증진 활동을 통해 한센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다.

이는 한센병 관리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치료 이후의 삶까지 책임지는 사회적 과제이며, 존엄한 노후와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문제임을 보여준다.



■ 한센병의 진짜 과제는 '질병'이 아닌 '편견'

세계 한센병의 날은 단순히 질병을 알리는 날이 아니다.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사회적 낙인과 차별 속에서 삶의 기회를 제한받아 온 한센인의 현실을 다시 돌아보는 날이다.

'한센병은 치료할 수 있지만, 진짜 과제는 낙인이다(Leprosy is curable, the real challenge is stigma)'라는 세계 한센병 날의 메시지처럼, 올바른 정보와 인식 개선이 한센병 퇴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우리 사회가 한센병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이해와 연대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한센병은 역사 속 질병으로 남게 될 것이다.



국내·외 한센병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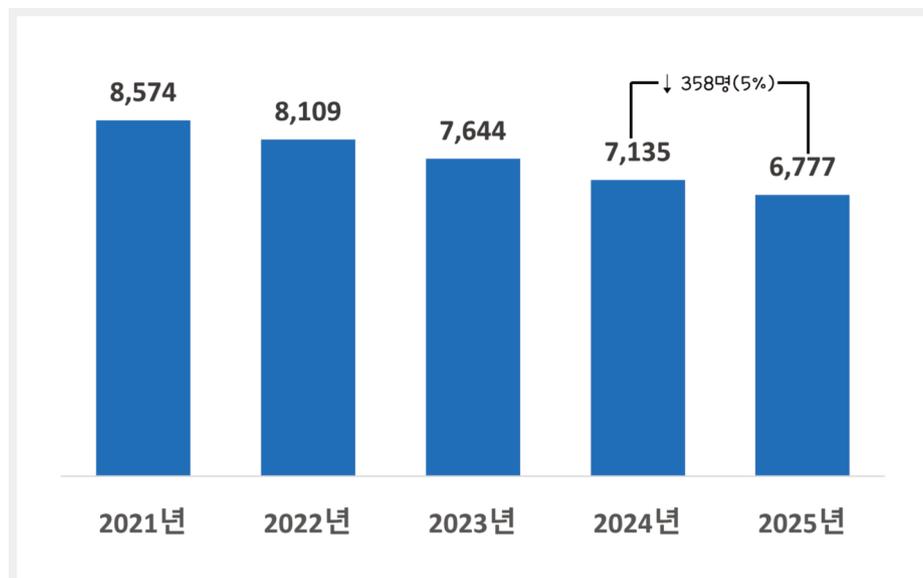
■ 국내 한센병 신환자 발생 현황(2016~2025)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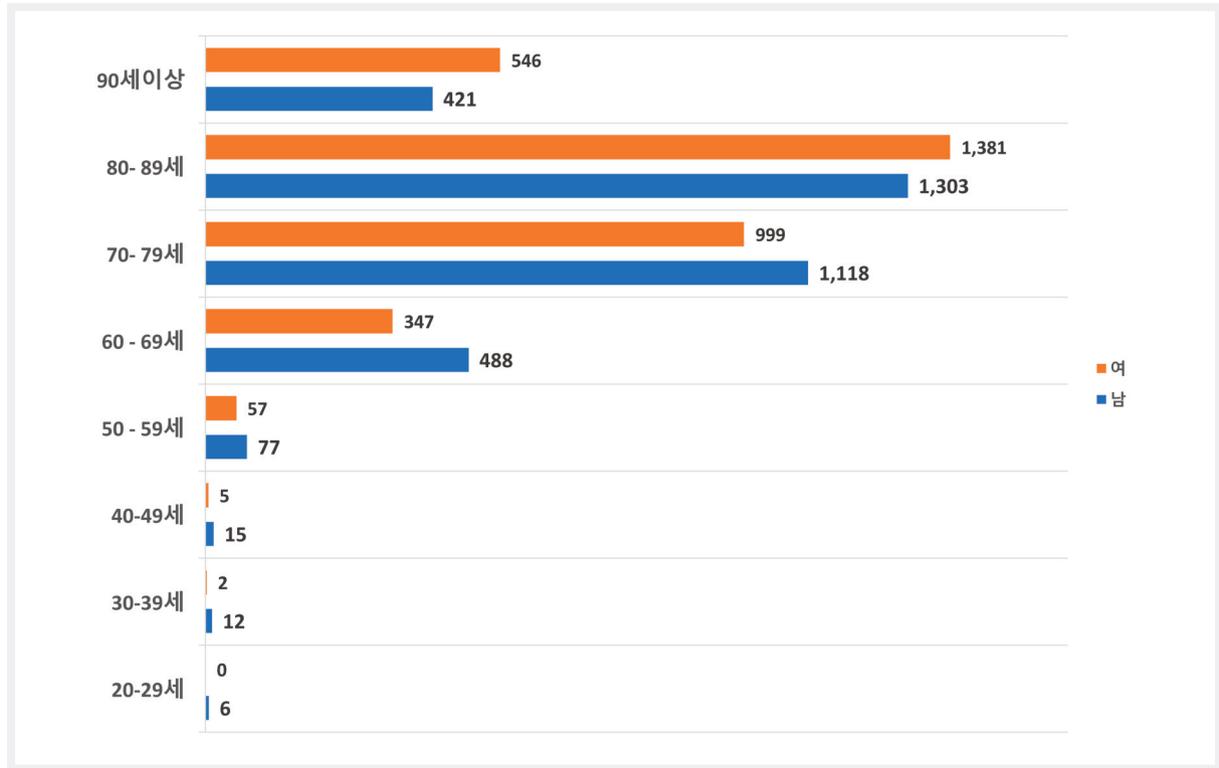
년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총계	4	3	6	4	3	5	2	3	5	3
내국인	2	2	6	0	1	2	0	1	0	1
외국인	2	1	0	4	2	3	2	2	5	2

■ 2025년 한센병사업대상자 현황

- 한센병사업대상자: 치료대상자 + 서비스대상자(재발관리·재활관리)
- 2025년 한센병 사업대상자는 6,777명으로 2024년 대비 358명(5.0%)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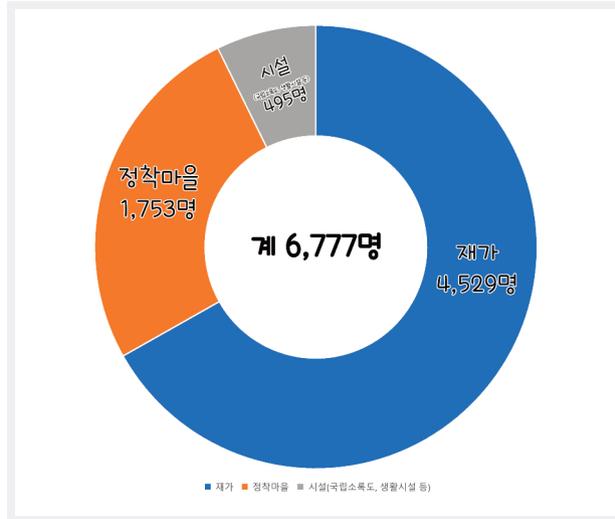
■ 한센병사업대상자 성별·연령별 현황



(단위: 명, %, 세)

구분		계	20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 - 69세	70- 79세	80- 89세	90세 이상	평균 연령
계	명	6,777	6	14	20	134	835	2,117	2,684	967	80.1
	%	100	0.1	0.2	0.3	2.0	12.3	31.2	39.6	14.3	
남	명	3,440	6	12	15	77	488	1,118	1,303	421	79.6
여	명	3,337	-	2	5	57	347	999	1,381	546	80.7

■ 한센병사업대상자 거주형태별 현황



재가: 4,529명

정착마을: 1,753명

시설(국립소록도, 생활시설 등): 495명

■ 2024년 해외 지역별 신환자 발생 현황(WHO)

지역	신환자 수(명)	비율(%)	비 고
아프리카(47개국)	19,171	11.1	
미주(43개국)	23,600	13.7	브라질(22,129명)
지중해 동부(20개국)	2,409	1.4	
유럽(38개국)	97	0.1	
동남아시아(11개국)	124,295	72.0	인도(100,957명) 인도네시아(14,698명)
서태평양(29개국)	3,145	1.8	
계(188개국)		100.0	

※ 출처: Global leprosy update, 2024(WHO): Beyond zero cases('25.9.12.)

한센병 바로 알기

한센병이란?

- 나균에 의한 만성감염병이지만 나균에 대한 면역기능이 아주 약한 경우에만 발생되고, 조기에 진단하여 조기치료를 시작하면 후유증이 거의 없이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한센병 증상

- 가장 보편적인 증상은 피부가 퇴색되거나 붉은색 등으로 침착된 반점이 나타납니다.
- 가렵지는 않지만 따뜻하거나 차갑거나 아프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해 상처나 화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또한 피부 병소가 생기기 전에 신체의 주요 신경을 잠식하여 신경통 증상으로 임파선이 붓고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 증상이 오래될 경우 손가락, 발가락 등에 힘이 없고 구부러지기도 하며 눈썹이 빠지기도 합니다.

한센병 치료시 주의사항

- 처방약물은 규칙적이고 정확히 드셔야 합니다.
- 약물투약 중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지러움, 피부염, 피부착색, 오심, 설사, 위장장애, 두통, 현기증, 불면 등)
- 기타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중단하고 진료 받은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 한센병 관리를 위한 권고처방은 다양합니다. 담당 선생님과 의논 후 투약처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권고처방을 통한 정확하고 빠른 한센병 치료로 최상의 치료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Q&A



Q1 한센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는 도중에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나요?
아니오.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습니다.



Q2 부정군(不定群)나는 무엇을 말하나요?

- 한센병의 한 개 또는 소수의 명확하지 않는 병변이 나타나며, 피부반점이 얼굴, 사지, 엉덩이 등에 발생하며 감각소실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 부정군나의 증세는 향후 결핵양형나 또는 나종형나로 진행되기도 하며, 때로는 자연 치유되기도 합니다.



Q3 한센병의 나반응이란 어떤 것인가요?

한센병의 면역학적 변화에 따른 급성 염증 반응이며,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합니다. 나반응은 새로운 감염 없이 급성염증이 때로 심하여지는 현상을 의미하며, 환자의 약 25%에서 관찰됩니다.



Q4 한센병은 완치가 가능한가요?

한센병은 치료 가능하며, 완치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한센병은 답손, 리팜피신, 클로파지민 등의 약물을 병용하여 치료합니다. 이 치료를 적기에 하게 되면 조기에 나균이 사멸 되어 한센병이 완치됩니다.

자료출처 : 2025년 한센병사업 관리지침



놓치지 마세요! 꼭 필요한 복지지원 한눈에 보기

1 요양·돌봄 서비스 지원

- ☑ 대상자: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생활이 어려운 경우
- ☑ 제공내용: 일상생활 지원 및 요양(돌봄)서비스
- ☑ 제공기관

기관명	지역	입소 담당
성라자로마을	경기 의왕시	031-452-5655
여수해양평안요양소	전남 여수시	061-682-9595
안동성좌원	경북 안동시	054-852-1448
산청성심원	경남 산청군	055-973-6966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충북 오창읍	043-241-1300

- ☑ 입소비 발생 여부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건강보험가입자: 일부 시설의 경우 입소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

2 생계비 지원

- ☑ 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생활시설 및 간이양로주택 거주자 제외
- ☑ 제공내용: 매달 약19만원(2025년 기준) 지원(본인통장)
- ☑ 제공기관: 주민등록 관할보건소
- ☑ 안내 및 지원 가능문의: 주민등록 관할보건소

3 재활수술 및 보장구 지원

- ☑ 대상자: 재활수술 및 보장구 지원이 필요한 경우
- ☑ 제공내용 및 제공기관
 - 연구원: 성형외과, 정형외과, 치과, 안과 등 지원
 - 연구원·지부: 의수족, 보조기, 족지, 특수화 등 맞춤형 제작 지원
- ☑ 안내 및 지원 가능문의: 진료받는 복지협회 문의

4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 한센인 평생교육 사업: 치매예방교육, 노년 생활플러스교육,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
- ☑ 한센인 복지 사업: 찾아가는 문화복지, 한센인 합동결혼식, 우리마을 행복사진관(장수사진), 한센인 독거노인 돌봄
- ☑ 기획·홍보 사업: 한센인 구술 기록화
- ☑ 안내 및 문의: 한국한센총연합회 1566-2339

5 피해보상 청구

- ☑ 대상자: 일제 강점기하 가족(2세, 형제·자매, 배우자 포함) 피해자
- ☑ 제공내용: 피해보상 청구 관련
[한센 가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안내] 페이지 참조
- ☑ 안내 및 문의: 한국한센총연합회 1566-2339

“환절기마다 아프다면?” 먹으면 건강해지는 봄 제철 음식 10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몸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

봄 제철 음식은 영양소가 더욱 풍부해 환절기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양한 조리법으로 봄 제철 음식 즐기고 맛과 건강을 모두 챙겨보자!



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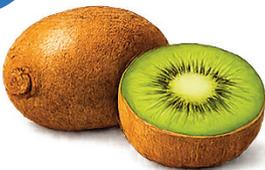
- **면역력 강화 성분:** 비타민 A, C, 칼륨, 철분, 시네올
- **효능:** 피를 맑게 하고 면역력을 증진하며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노화를 방지하고, 호흡기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 **섭취 방법:** 쑥 된장국, 쑥떡, 쑥밥 등으로 활용하거나 말려서 차로 마시면 좋다. 데친 후 냉동 보관하면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

냉이



- **면역력 강화 성분:** 아연, 셀레늄, 프롤린
- **효능:** 항산화 작용과 세포 보호 효과가 있으며, 스트레스 해소와 면역 체계 강화에 도움을 준다.
- **섭취 방법:** 국이나 찌개에 넣거나 나물로 무쳐 먹고 전이나 튀김으로도 좋다.

키위



- **면역력 강화 성분:** 비타민 C, 식이섬유 (펙틴)
- **효능:**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를 촉진하며 심혈관 건강에도 좋다.
- **섭취 방법:** 하루 1~2개를 껍질째 섭취하거나 즙을 내어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

바지락



- **면역력 강화 성분:** 아연, 셀레늄, 비타민 C
- **효능:** 면역 세포 생성 및 보호에 도움을 주며 항산화 작용으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 **섭취 방법:** 바지락국, 찜, 파스타 등에 활용하거나 된장국 재료로 사용하면 좋다.

주꾸미



- **면역력 강화 성분:** 타우린, 철분
- **효능:** 피로 회복과 간 기능 개선에 뛰어나며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타우린은 특히 면역력 저하 방지에 좋다.
- **섭취 방법:** 주꾸미 샤부샤부나 볶음 요리로 즐길 수 있으며 먹물까지 활용하는 요리도 추천된다.

가자미



- **면역력 강화 성분:** 비타민 B12, 비타민 D, 셀레늄
- **효능:**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뼈 건강에도 좋다.
- **섭취 방법:** 구이, 찜 또는 회로 섭취하며 저열량 식품으로 다이어트에도 적합하다.

더덕



- **면역력 강화 성분:** 비타민 A, C, E, 폴리페놀
- **효능:** 항염 작용과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며 노화 방지와 암 예방 효과도 있다.
- **섭취 방법:** 더덕구이나 무침으로 섭취하며 장아찌 형태로도 즐길 수 있다.

도다리



- **면역력 강화 성분:** 도다리에는 셀레늄, 비타민 D, 비타민 A, B12, E
- **효능:**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예방하며, 체내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 비타민 A와 오메가-3 지방산은 눈 건강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이바지한다.
- **섭취 방법:** 도다리는 도다리숙국, 찜, 구이 등으로 조리해 섭취할 수 있으며,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안전하다.

봄동
(봄배추)



-
- **면역력 강화 성분:** 비타민 C, 필수 아미노산
 - **효능:** 외부 바이러스와 세균 침투를 막아주며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방지한다.
 - **섭취 방법:** 겉절이로 먹거나 된장국에 넣어 섭취할 수 있고, 저칼로리라 다이어트에도 적합하다.

한국한센총연합회와 똑똑한 두뇌 운동하고, 치매를 예방해요!

[특정 글자 찾기] 다음 중에서 '나무'을 모두 찾아보세요.

나무	니무	너무	나문	나물
노무	나뮤	나머	나미	나무
나므	니므	나무	나모	너므
니무	너무	나물	노무	나므
노무	너무	니무	나무	나미
너무	나무	니무	나물	노무
나물	니무	너무	나무	나미
나무	노무	나무	나물	나무
니무	너무	나물	니무	노무
나무	나무	니무	너무	나므
너무	니무	나물	나무	니무
니무	나물	나무	너무	노무

'나무'의 총 개수: ()개



[단어 만들기]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단어를 최대한 만들어 보세요.

<예시> ㄱ, ㅏ, ㅑ, ㅣ → 고기

ㄱ	ㅑ	ㅓ	ㅕ	ㅛ
ㅕ	ㅓ	ㅛ	ㅑ	ㅓ
ㅛ	ㅓ	ㅣ	ㅓ	ㅡ
ㅓ	ㅓ	ㅏ	ㅓ	ㅣ
ㄱ	ㅓ	ㅑ	ㅓ	ㅏ
ㅏ	ㅓ	ㅓ	ㅕ	ㅡ
ㅓ	ㄱ	ㅑ	ㅓ	ㅇ
ㅓ	ㅛ	ㅓ	ㄱ	ㅑ
ㅑ	ㄱ	ㅓ	ㅓ	ㅕ

<찾은 단어를 모두 적어보세요>

더 돌봄(THIRD 돌봄)

“더 많은 지역으로,
더 든든한 돌봄이
찾아옵니다!”

돌봄통합지원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돌봄통합지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내 집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보건료·장기요양·일상생활·주거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제공합니다.



대상자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더 돌봄(THIRD 돌봄)

지원 절차

- 1 신청
- 2 종합판정조사(방문 상담 등)
- 3 지원계획 수립
- 4 서비스 연계
- 5 모니터링

※ 가족, 이용기관 등 대리 신청 가능



상담 · 신청 접수

해당지역 관할

- ☎ 행정복지센터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돌봄통합지원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정책방향 > 돌봄통합지원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주요 돌봄 서비스

보건료료

- 1 방문진료
- 2 재택의료센터
- 3 만성질환 건강지원



일상생활

- 1 식사 지원
- 2 가사 지원
- 3 차량 지원



요양

- 1 방문요양·목욕·간호
- 2 복지용품



주거

- 1 안전홈케어
- 2 케어안심주택



한센 게시판

한센인(병) 관련 유물을 찾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기념관 건립·운영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은 한센인 또는 한센병 관련 유물을 기증(서약)받고 있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

한센시설(병원) 생활유품
또는 기록

한센가족 후원 또는 봉사
관련 자료



한센가족 작품
(문학, 미술, 음악, 사진 등)

기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한센인과 함께 만드는 종합정보소식지 '한센' 원고 모집 공고

■ 응모 대상 : 제한 없음

■ 응모 기간 : 상시 접수

■ 원고 내용 및 분야

- 한센인 관련 미담, 에피소드, 봉사 수기
- 한센인 창작 또는 한센인 소재 문학 : 시, 소설, 수필 등 제한 없음
- 한센인의 생활현장, 민원 등 지역 소식
- 한센인 관련 정책·학술·역사 자료
- 한센인 관련 다양한 분야의 칼럼
- 기타 「한센」게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원고

■ 응모 방법

- 제출처 : 총연합회 「한센」 담당자
 - 우편제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 팩스제출 : (02) 1566-2032
 - 이메일제출 : hansen@hansenkorea.org
- 전화문의 : (02) 1566-2339



후원자가 되실 분을 찾습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는...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수용을 촉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한센인에게 사랑과 희망을!

후원자 여러분들이 베풀어주신 사랑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언제나 따뜻한 사회,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한국한센총연합회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 후원회장 김정남

후원계좌 국민은행 433401-01-330682 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한센총연합회 본부 및 지부 주소

지부명	전화	팩스	주소
중앙회	1566-2339	1566-2032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서울·중부지부	(02)532-6777	(02)532-90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9길 10-20(방배동 202호)
부산지부	(051)245-8207	(051)245-820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4번길 3
인천지부	(032)515-5501	(032)515-5504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달로 298번길 62-3
경기지부	(031)973-5329	(031)973-317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1 802-1호
전북지부	(063)542-7822	(063)545-7820	전북 김제시 갈공길 21
광주·전남지부	(062)524-3485	(062)524-3484	광주광역시 북구 버들로 23 동방빌딩 3층
대구·경북지부	(054)971-8975	(054)977-8975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4길 5
울산·경남지부	(055)584-4333	(055)584-4332	경남 함안군 군북면 방어산로 618

‘한센’ 편집 자문위원

위원장	우홍선(사무총장)
위원	박영립(법무법인 최앤박 대표변호사), 신재균(법무법인 서해 변호사), 옥춘광(작가)
기획	전희진

지구의 모든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안식처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 이제 평화로운 삶을 누리십시오.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는 고령한세인을 위한 노인 친화적 환경의 무료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네트워크로 고령한세인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공감을 포괄할 수 있는 전인적 관점의 사회통합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사례관리
인권개선운동
재활·치료 프로그램



지역사회교류 활성화

지역사회 기여 실천
보편적 협력기관 확대
긍정적 환경마련



노후생활 안전보장

1:1 개별 서비스
요양·보호·여가 지원
안정적 생활환경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EVERGREEN WELFARE CENTER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산2길 116-15 | TEL : 043) 241-1300 / FAX : 043) 241-1302
E-mail : egwc1300@egwc.or.kr | 홈페이지 : http://www.egwc.or.kr



모든이에게 사랑과 소망을

HANSEN 한센

하나하나의 나눔이 모여
더큰 베품과 사랑이 됩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는 늘 여러분들께 열려 있습니다.